화성시, 北 해주시에 문화교류 등 제안

의약품 등 14개 남북협력 사업 제의
전국 지자체 중 구체적 제안은 처음
서철모 시장 "신뢰 구축 계기 희망"



서철모 화성시장이 29일 북한 해주시와 농업을 비롯해 사회문화 교류 등을 포함한 5개 분야 14개의 남북협력 사업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서철모 화성시장이 북한 해주시와 농업을 비롯해 사회문화 교류 등을 포함한 5개 분야 14개의 남북협력 사업을 제안했다.

서 시장은 29일 시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성-해주 남북협력 제안'을 발표했다. 전국 226개 지자체 중 남북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화성시가 처음이다.

시는 올해 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자체 간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5월부터 TF팀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해왔다.

특히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은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자문이 더해져 지역 간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성 높은 제안들이 완성됐다.

제안 사업은 농업 보건, 환경 경제, 도시협력, 사회문화, 화·해사업 5대 분야 14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 사업들은 1단계 생활협력, 2단계 상호교류, 3단계 투자협력, 4단계 이익공유로 인도적 지원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다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1단계 주요 사업으로 농업 필수품·의료용품 지원, 산림 생태환경 공동조사, 투자 가능 기업 현황 조사, M.I.H예술단 방북공연, 해주지역 기반산업 조사 연구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제안을 토대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시민 아카데미 개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 전문가들로 구성된 6명의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위원'도 위촉했다.

화성시의 남북협력 제안 발표에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상임대표인 염태영 수원시장, 사무총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공동대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등 회원도시들이 사업 성공을 기원하는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시민, 기업과 함께 남북 협력의 길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서두르지 않고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순철 기자

성남시, 지능형 교통체계 등 스마트 도시로 변신

2025년까지 889억 들여 28개 서비스
내년 긴급車 우선 신호시스템 구축



성남시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이 온라인 시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등 '스마트 도시계획'과 관련한 추진계획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성남시 스마트 도시계획(2021~2025년)'을 토대로 오는 2025년까지 총 889억 원을 들여 교통, 안전, 환경, 문화, 행정, 기반시설 6개 분야 28개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한다.

내년부터 2년간 275억 원(국비 165억 원 포함)을 투입해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스마트 교차로, 주차정보 통합 플랫폼 등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구축한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지자체 ITS 국비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65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 3월엔 국토부가 주관하는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공모에도 선정돼 국도비 23억 원을 지원 받아 총 39억 원 규모의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을 펼친다.

폭염, 한파,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IT기반의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11곳과 바닥신호등, 보행자 안전지대 등 교통안전을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 4곳, 드론을 활용한 도시 공간정보수집과 긴급상황 초기 영상정보 획득을 위한 자율항행 드론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시켜 성남시민의 안전 또한 지켜나간다.

▲내년 3월 안양판교로 운중고개 구간 제설자동화 설비 구축 ▲비행안전구역(수진 습지~세곡천 합류부) 내 노후·훼손된 쏠라표지병 200개 설치 ▲독거노인 스마트 의료서비스 제공 ▲AI(인공지능)기반 선별 관제 CCTV 통학로 확대 등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AI(인공지능) 상담 서비스 운영 ▲스마트도시 종합포털 구축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3차원 가상세계 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한 행정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시민 편의를 증대시켜 나간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은 "시민 여러분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성남시가 끊임없이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나가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글로벌 스마트 창조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온라인 시정브리핑은 유튜브(성남TV)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김대성 기자

남양주 황금산 등산로에 위치 알림 표지판 설치

남양주남부경찰서, 응급·범죄신고 때 신속 출동 가능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다산2지구대, 다산2생활안전협의회,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등 민관합동 TF팀을 구성, 등산로 위치알림 표지판을 설치했다. 남양주남부경찰서 제공

남양주남부경찰서(총경 김종필)는 다산2지구대, 다산2생활안전협의회,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등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해 등산로 위치알림 표지판 설치계획을 추진했다.

다산2지구대는 황금산 문화공원, 유아숲체험원 등 지역 주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휴식 공간인 황금산이 진입 코스가 다양하고 주 등산로 외에 다양한 샛길 등의 존재로 응급환자나 성폭력 등 우범자 신고 시 정확한 위치파악에 어려움이 상존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민관 합동 TF팀은 주 1회 사전 회의를 통해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발굴하고 사전 답사팀을 구성해 등산로 9코스를 도보로 돌며 지정장소 52곳을를 물색했다.

이를 통해 황금산등산로지도를 자체 제작해 표시지점을 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112시스템 위치정보값을 입력해 경찰 소방 및 주민센터 상황실과 공유를 통한 민·관 협동 지역공동체치안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김두연 다산2지구대장은 "성폭력 및 안전사고 등 발생시 위치를 특정할 건물이 없어 정확한 위치 찾기가 어려운 황금산 등산로 일대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위치 알림판 지정·설치로 112신고 접수시 신속한 대응 및 알림판을 통한 범죄위축 심리로 범죄예방효과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화우 기자

12월 1일은 화재예방 대청소의 날

■ 기고



정요안
성남소방서 서장
행정학 박사

경기도에서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를 겨울철 소방안전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기관이 재난 안전, 사회복지, 주거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점검과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소방 분야에서도 화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경기도 모든 소방서에서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학교, 사업체 등 모든 영역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과 재난대비훈련을 병행해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 올해는 더 특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바로 화재 예방을 위한 대청소의 날이다.

이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담배꽁초와 온갖 잡다한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흡연에 의한 담뱃불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을뿐 만 아니라 노상 방뇨로 인한 악취가 풍기는 등 사각지대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건물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청소와 불씨가 될 만한 것들을 점검하고 제거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성남시에서 옥상이나 베란다 등에서 담배를 피우고 건물 사이로 집어 던지는 행위로 인한 화재가 올해만 해도 8건이 발생했다.

이번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 점검의 날마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가건물 사이에 쌓여있던 폐건축자재, 생활쓰레기와 붙어 있는 먼지들만 제거해도 화재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거리 환경을 깨끗이하여 상가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가정에서도 겨울을 준비하면서 전기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과 청소를 해보는 것을 권하고 싶다. 자녀와 함께 한다면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멀티탭에 대한 청소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멀티탭은 손때도 많이 묻고 안쪽에 먼지가 쌓이면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전원을 차단하고 흠부분은 면봉으로 에탄올이나 먹다 남은 소주를 가지고 닦아주고 마른 천을 이용해서 닦아주면 된다.

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는 수많은 먼지가 존재하며 이러한 먼지에 의해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은 자신의 소장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청소하고 애지중지 관리를 한다. 하지만 공유물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성남시 지역적 특성으로 주택과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안전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성남소방서에서는 수정구, 중원구,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12월 1일을 화재 예방 대청소의 날로 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모두 다 같이 참여하는 좋은 날! 깨끗한 날! 화재없는 날! 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파주시 민원서비스 우수성 행안부에서 인정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기관에 뽑혀
최종환 시장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파주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기관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국세청 등 1516개 기관의 민원실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공간, 민원서비스 운영, 고객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78개 기관의 민원실이 인증을 받았다.

파주시는 지난 2014년 처음 인증을 받은 뒤 2018년 재인증에 이어 2021년도에도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오는 2024년까지 효력이 연장됐다.

시는 그동안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 관리와 보안 2·5·7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 실무종합심의회, 민원후견인제도, 목요야간민원실 운영, 무료법률상담 등 차별화된 민원시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노후한 민원실 시설을 개선, 접근성과 민원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민원실 비상벨, 자동녹음전화, 민원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토닥토닥' 직원심리상담센터 운영,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교육을 진행하는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해왔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찾아내고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연식 기자

누구나 예술가… 제1회 이석영 문예창작제 개최

남양주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서
시·수필·서평 대상 등 우수작 선정



남양주시는 지난 27일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서 '제1회 이석영 문예창작제'를 개최했다.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지난 27일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서 '제1회 이석영 문예창작제'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이석영 문예창작제는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의 청소년 활동 그룹인 '영크리에이터크루'(이하 영크크)가 주관한 행사로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슬로건처럼 시민 작가를 발굴하고 더불어 남양주시와 위대한 독립운동가 이석영선생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수필·서평 3개 분야에 접수된 총 61편의 작품 중 상주작가 등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9편의 우수작(대상 3편, 우수상 3편, 장려상 3편)이 최종 선정됐다. 우수작 수상자에게는 남양주시장상을 수여하며, 해당 작품은 오디오북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석영 선생 평전 '그 뜻 누가 알리오'의 노항래 작가가 참석해 서평 분야 수상자들을 직접 시상해 그 의미를 더했다.

남양주시 이제창 도서관정책과장은 "남양주 청소년들이 기획한 의미 있는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기쁘다"며 "좋은 작품으로 수상한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남양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화우 기자